

# 해외출장 결과보고서

산업경제연구부 김양중·이민정·송민정

## 1. 국외연수의 필요성 및 목적

- 본 국외연수의 목적은 수탁과제 ‘충남 생활소비재산업 육성방안 수립 연구용역’과 관련하여 일본 라이프사이언스 클러스터의 총괄운동을 맡고 있는 일본의 이시카와현 카나자와시(石川縣金沢市)를 방문하여 운영과 프로그램 발굴 등을 파악하는 것에 있음.
  - 본 지역은 일본 호쿠리쿠(北陸)지역에서 라이프 사이언스 클러스터(ライフサイエンスクラスター, Life science cluster) 운영을 통해 인재개발, 연구자간 네트워크, 사업발굴 등을 수행하고 있음. 카나자와시에 위치한 클러스터 사무국에 방문하여, 총괄디렉터 인터뷰를 통해 운영방향, 프로그램 등을 파악
- 이시카와현(광역)과 카나자와시(기초)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‘중소기업 제조지원정책 설명회’참관을 통하여 각종 지원 수단 및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 사례 조사
  - 각종 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, 제도 및 지원 사업 등에 대하여 파악
  - 일본 지자체의 ‘지역자원’에 대한 개념정립과 2,3차 산업간 융복합, 지원정책 방향 설명회 참관
- 더불어, ‘크래프트 투어리즘’의 명칭으로 카나자와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문화, 소상공인, 관광을 결합한 관광코스를 견학
  - 지역에 산재된 콘텐츠를 어떻게 ‘팔릴 수 있게’ 편집하는지
  - 관광이 ‘상품판매의 시대’에서 ‘행위판매의 시대’로 전환되는 시대흐름에 대응하는 Local Cool Japan 전략 대응지역의 모습 견학

## 2. 국외연수의 개요

- 연수기간: 2018년 3월 25일(일) ~ 28일(수) / 총 3박 4일
- 연수지역: 일본 이시카와현 카나자와시
- 연수인원: 3명
  - 산업경제연구부 김양중 연구위원
  - 산업경제연구부 이민정 책임연구원
  - 산업경제연구부 송민정 연구원

## 3. 일정별 주요 방문지 및 내용

### 1) 카나자와시 '카나자와 크래프트 투어리즘'

위치	金沢市東山 일원
----	----------

- 일본 카나자와시의 경우, 2009년 유네스코가 창설한 '창조도시 네트워크'에 등록됨. 이 네트워크는 창조적이고 문화적인 산업을 육성한 세계 각 도시의 국제적 교류를 유네스코가 지원
  - 카나자와시는 크래프트&포크 아트 분야에 등록되어 있음
- 카나자와 크래프트 투어리즘
  - 카나자와의 경우 역사적으로 금박, 염색과 같은 전통공예와 다도 등의 전통문화, 화과자와 같은 음식문화가 발달하였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업부분의 발달은 미흡하였음
  - 관광부분에 창작활동의 장소 견학, 공예체험 등을 결합시킨 전통+체험형 관광을 '카나자와 크래프트 투어리즘'이라고 명명하고 지역 고유의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소개 함

■ 방문 장소

○ ‘가나자와 크래프트 투어리즘’의 대표장소인 ‘히가시아마’



히가시 찻집 거리



공예품 판매



크래프트 투어리즘 참여가게  
(쿠니타니 도자기)



민가를 활용한 갤러리

- 히가시 찻집 거리는 국가문화재에 지정되어 있으며, 카나자와의 4개 지구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으로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임
- 전통 차 문화(다도)등을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옛 건물의 형태를 그대로 살려 놓고 내부만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여 현대식 찻집이나 기념품가게 등으로 운영되고 있기도 함
- 기념품의 경우에도 카나자와에서 유명한 다양한 공예품을 판매하고 있음

## ■ 시사점

- 전통의 문화와 관광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현대화의 적절한 조화, 소상공인 지원방안으로 활용 가능
  - 지역의 전통적인 아이템(건물, 차, 금박공예 문화 등)을 활용하고 유지하면서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현대화 시설을 갖추어 지속적인 관광객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음
  - 쇠퇴할 수도 있는 지역 전통 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 제공

## 2) 호쿠리쿠 라이프사이언스 클러스터 협회(인터뷰)

위치	一般財団法人 北陸産業活性化センター(金沢市片町2-2-15)
면담자	호쿠리쿠AJEC 경제교류부장, 호쿠리쿠 라이프사이언스 클러스터 추진실 프로젝트디렉터

- 호쿠리쿠는 3개 광역지자체(도야마 현, 이시카와 현, 후쿠이 현)로 이루어진 광역경제권으로, 주요산업을 중심으로 한 동해권의 모노즈쿠리 제조업 지역을 형성하였음
  - 도야마의 한약(산업)을 중심으로 라이프 산업이 시작되었고, 이후 이시카와현의 하이테크 센싱 클러스터(의료기기 중심)산업과 연계하며 문부과학성 프로젝트를 진행(호쿠리쿠 건강창조클러스터, 1년 6억엔 지원)
  - 후쿠이의 '치료'관련 산업까지 클러스터가 확장되면서 5년간 1억 5천만엔(약 15억원)을 문부과학성에서 지원 받음



- 호쿠리쿠 클러스터의 대표적인 특징은 중소기업의 기술 및 물건의 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판매, 코디네이터를 통한 인재육성 등의 사업까지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점임
  - 각 지역별 주요 산업 한약 및 약재(도야마), 의료기기(이시카와), 치료산업(후쿠이)과 관련된 기업의 기술 및 상품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, 라이프 사이언스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‘판매’를 통하여 그 이익이 다시 중소기업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함
  - 10명 내외로 구성된 연구집단에서 상품과 기술 등을 개발하고 연구 결과는 홈페이지 ‘가상 카페’에 공유하고,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수정 보완하는 단계를 거침
  - 주로 OB로 구성된 코디네이터의 경우 지역대학 및 회사등에서 연구 seeds를 수집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, 인재육성의 일환으로(사업 예산 부족으로 인재육성을 위한 단독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나) 대학지원 세미나 지원
  - 금융지원의 경우 실질적인 경비등을 지원하는 재정적 방법 보다는, 금융 관련 기업 활동가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짐
- 한국의 대구(바이오 분야), 원주(의약품 분야)와 연계한 공동 학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
  - 클러스터 초기에는 국가 지원 및 주도로 이루어 졌으나, 클러스터가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클러스터의 지원을 따로 담당하는 ‘호쿠리쿠 라이프 사이언스 클러스터 추진실’등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대구 및 원주 등의 지역과 정보와 상품을 교류하는 공동 활동을 추진하였음
  - 1회는 일본, 1회는 한국 등 번갈아 가며 행사를 진행하고 각 지역의 성공사례 등을 발표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음

## ■ 시사점

-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 ‘재정적’지원에 그치기 보다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의 장(場)을 마련해 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  - 경제적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, 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잠재력을 발

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함

- 중소기업 간, 지역 간 공동 연구 및 공동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단기간의 이익 창출이 아닌 장기적 이익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 마련이 중요함

○ 충남은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에 있어서 지역 내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국내 혹은 해외의 다른 지역 간 정보 교류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

-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새로운 상품의 개발이 더욱 용이해 질 수 있고, 그에 따른 다양한 이익을 창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간 교류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

### 3) 이시카와현·카나자와시 중소기업 제조지원시책 설명회(참관)

위치	金沢市ものづくり会館(金沢市粟崎町4 -80-1)
면담자	이시카와 ISICO 시책 담당자

○ 이시카와현과 카나자와시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중소기업 제조지원시책 설명회에 참관하여, 광역지자체인 현과 기초지자체인 시의 시책들을 지역의 중소기업이 어떻게 이해하고 자신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려 하는지 견학

- 일본에서는 ‘지역자원’을 활용한 제조업과 서비스업(관광, 도소매, 숙박업 등)을 연계한 다양한 융복합을 중시
- 일본국내 최다금액의 펀드를 조성. 융복합 활동과 신산업 창출을 지원





